

# 보성군, 칸탈로프 멜론 유망작목 부상

## 신품종 멜론 실증 시험재배 사업 평가회 개최

보성군은 지난달 29일 보성군 노동면 메디팜 농장에서 관계자 및 농업인 20명을 초청하여 신품종 멜론 육성 연구를 통한 고소득 유망작목 개발을 위한 '칸탈로프 멜론 실증 시험재배' 사업 평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칸탈로프 멜론 소개, 재배포장 견학, 멜론 시식 및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시간을 가졌다.

칸탈로프 멜론이란 유럽의 대중적인 기능성 멜론으로 일반 멜론

에 비해 베타카로틴 67배, 활성산소억제효소 7배가 많으며, 비타민, 단백질, 칼륨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질환 개선과 지방 분해, 면역력 증진 등에 효과가 있어 세계 3대 장수 식품으로 불린다. 뿐만 아니라 당도도 높고 과육이 부드러워 여러 가공 식품에도 활용되고 있으며, 소득 측면에서도 현재 일반멜론보다 2배 높아 고소득을 올릴 수 있어 유망작목으로 급부상중이다.

농업기술센터 정안기 소장은 "칸탈로프 멜론은 맛은 물론 기능



성까지 견비한 고소득 유망작목"이라며 "멜론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우리지역에 맞는 재배기술 정립을 통해 내년도도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성=인규일 기자

## 영광군, 내수면 자원 조성 박차

3개 저수지 어린자라 5500마리 방류

영광군은 최근 지역 마을 주민들이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마 남산저수지, 묘량 장동저수지, 낙월 월촌저수지에 어린 자라(각장 2.5cm이상) 5천5백마리를 방류했다.

토종 어린자라 방류사업은 내수면의 수산자원 조성의 일환으로 관내 저수지의 생태계 보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자라는 전 세계적으로 25종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1종만 서식하며 저수지의 퇴적층을 파헤치는 습성이 있어 저수지 생태 환경 및 수질을 개선하는 환경

정화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자라는 맛이 좋고 리놀산 등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예로부터 강장제나 고급요리의 재료로 이용되며, 방류 후 생존율이 95%로 높고 2~3년 후 17cm이상 체중이 2~3kg로 성장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오는 9월경에 등자개 6만여마리를 추가로 방류할 계획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 "참신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구합니다"

화순군, 20일까지 공모

화순군이 오는 20일까지 '2019년 화순군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

아이디어 공모전은 군민들과 청년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민 특히, 청년들의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년 청년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한다.

일상생활에서, 일하는 근로 현장에서,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육아 현장에서 느끼는 모든 청년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화순군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생활·복지 ▲청년 문화·예술·교육 ▲기타 청년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아이디어는 이메일(dustisz@korea.kr)이나 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모에서 채택된 아이디어는 금상(1명) 150만 원, 은상(1명) 100만 원, 동상(2명) 50만 원을 상금

으로 준다.

군 관계자는 "채택된 아이디어는 화순군 청년정책에 반영해 실제 청년들의 삶이 개선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www.hwasun.go.kr)을 참고하거나 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61-379-3256)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 광양매화축제, 빅데이터 '최고인기 대상'

광양시는 최근 서울 광화문 KT 올레스퀘어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대상' 시상식에서 광양매화축제가 '최고인기 대상'과 부상으로 5천만 원 상당의 KT BigSight Trip 이용권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대상'은 매일경제, 세계축제협회(IFEA)한국지부, 고려대학교 빅데이터융합사업단, KT, BC카드, 다음소프트가 공동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상하는 국내 최초 빅데이터 축제 시상식이다.

광양매화축제는 외지 방문객의 이동 거리가 가장 길고, 외지인 방문 증가율이 현저히 상승한 축제인 만큼, 대한민국 축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성장잠재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이번 수상은 고려대학교 빅데이터융합사업단에서 개발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도구인 '축제 절대평가 시스템' 데이터에 기초한 1차 정량평가를 통과하고, 전문가의 2차 정성평가를 통해 매력과 잠재력을 인정받은 값진 쾌거다.

광양=김승호 기자

## 순천시, 균형발전 박람회 준비 총력

순천시는 최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in 전남 순천'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상황보고회를 열고 각 부서별 종합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병주 순천부시장을 주제로 지난 7월 11월 1차 보고회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보고회로 자치혁신과장, 기획예산실장, 홍보실장 등 관련 부서장 20여명이 참석하여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균형발전 박람회의 운영 및 지원 부문에 있어서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다짐했다.

또 1차 준비상황보고회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숙박업소, 음식점소, 교통분야에서 순천역과 버스터미널, 버스 및 택시 등 방

문객이 주요 이용하는 시설의 청결을 위한 대청소의 날 운영과 성공 개최 결의 대회 개최, 주요 도로변 및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개막식과 개막축하공연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안전문제와 안전요원 배치, 행사장 인근의 약취 대책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김병주 순천부시장은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손님을 맞이할 때는 먼저 자신을 몸을 정결히 하고 마당을 쓸어 놓는다"며 "우리시도 전국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만큼 깨끗하고 맑은 생태도시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고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고흥동초김연수 전국판소리대회 개최



고흥군은 동초제를 완성한 고흥출신 김연수 선생을 추모하고 전통악인 발굴육성을 위해 오는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제21회 고흥동초김연수 판소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하는 본 대회는 고흥군이 주최하고 국악협회 고흥군지부와 동초제판소리보존회가 주관하며, 오는 10월 10일까지 방문 및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응모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

판소리대회는 일반부, 신인부, 고령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6

개 부문으로 나눠 열린 경연이 펼쳐지며, 일반부 대상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시상금 500만 원, 학생부 대상에게는 교육부장관상과 시상금 150만 원이 주어진다.

참가지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일반인과 학생(해외동포 교포 포함)으로 일반부 참가자는 만19세 이상인 자, 고령부는 65세 이상, 학생부는 초·중·고 재학생으로 재학증명서와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인부의 경우 판소리를 전공한 자는 참가 신청할 수 없다.

참가 신청접수는 10월 10일까지 한국국악협회 고흥군지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soh8373@hanmail.net) 또는 팩스(061-835-2211)로 접수 가능하다.

고흥=한윤섭 기자

##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 6일 개막



여수 국제아트페스티벌이 오는 6일부터 6일까지 여수 세게라비에서 열린다.

'더 적음과 더 많음'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10개국 작가 52명의 예술작품 256점을 만날 수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중국 미술계에 서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장샤오강과 쉐 춘야의 '방각과 기억-전구와 책'과 'The Green dog'가 있다.

홍익대 김대수 교수의 'Dream', 박미화 작가의 '입사귀와 어린 양', 서울대 김춘수 교수의 'ULTRA-MARINE1712', 정재철 작가의 영상 오브제 '해양스레기작업'도 눈여겨 볼만하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건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근무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